

대전·충남

대전·충남 벤처기업 수출 27.2% 증가

대전·충남지역 벤처기업의 지난해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에 따르면 2002년 한 해 동안 대전·충남지역 벤처기업 수출액은 2억1911만달러로 2001년 1억7224만달러에 비해 27.2% 늘었다.

이는 전국 벤처수출의 3.7%, 대전·충남 총수출(160억7321만달러)의 1.4%를 차지하는 것이다. 호조 품목은 컴퓨터(2079%), VCR

(945%), 무선 통신기기 부품(234%), 축전지(138%) 등이며 부진 품목은 개별소자 반도체(-30%), 정보 신호기(-13.5%), 안경렌즈(-11.2%), 의약품(-8.9%) 등이다. 또 차단기와 유선전송장치, 전선, 우주선은 지난해 처음 수출됐다. 한편 현재 대전·충남지역의 벤처업체 수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3728개)과 경기(2246개)에 이어 3번째로 많은 629개로, 국내 전체(8844)의 7.1%를 점유하고 있다.

부산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지역 IT기업 日 진출 적극 추진

부산정보산업진흥원(원장 장세탁)이 글로벌 마케팅 사업으로 지역 IT기업의 일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주일본부산무역투자사무소와 일본의 주요 도시인 오사카·도쿄에서 '2003년 IT분야 비즈니스 상담회'를 공동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 상담회에는 부산의 14개 지역 IT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일본측에서는 오사카 상담회의 경우 주일본부산무역투자사무소 관련

일본기업이 참여하며, 도쿄 상담회에는 도쿄 아이파크(iPark) 관련 바이어 및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 상담회에서는 한일 기업간 일대일 상담회로 진행하게 되며, 부산 IT기업 1개사가 일본측 바이어 및 IT기업 10~15개사와 개별 상담을 가질 전망이다.

전주

전주첨단벤처단지, 기계-자동차부품 집적화단지로 확대 조성

전주첨단벤처단지가 대폭 확대되고 기계 및 자동차부품 집적화단지로 특화된다. 전주시는 지난해 9월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옛 기능대학 2만5400㎡ 부지에 문을 연 첨단벤처단지를 오는 2005년까지 50억여원을 투입해 9만9000㎡ 규모로 확대하고 기계와 자동차부품 관련 업체를 유치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첨단벤처단지에 입주한 12개 업체가 개월 3개월만에 45만달러의 수출을 기록하고 다른 업체들의 입주문의

가 잇따르는 등 당초 예상보다 벤처단지가 활성화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전북대 자동차부품기술혁신센터가 입주해 있는 벤처단지 '산·학·관 협력복합단지'로 알려지면서 이를 벤치마킹하고 단지내 센터 및 입주업체와 협력하는 업체들의 방문도 줄을 이으면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시는 이에 따라 자동차부품과 고정밀부품 가공, 금형제작 분야를 중심으로 오는 2005년까지 모두 50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공장동과 컨벤션홀, 관리동 시설을 증·개축할 계획이다.

협회, 산업 및 지역별 단체장 회의 개최

협회는 지난 6일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산업 및 지역별 단체장 회의를 열고 서로간의 유기적인 조직구성에 관해 논의했다.

단체장 회의에서는 산업 및 지역별 대표 10명이 참석하여 향후 단체별 협의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연합체 구성을 위한 의제를 개발하기로 했다. 다음 단체장 회의는 오는 17일 오후 5시 한국기술센터 16층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